

의사소통 역량 신장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교육 연구*

: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김윤정*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3.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4. 연구결과 분석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본 연구는 의사소통 역량 신장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교육 연구의 기초 연구로 대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사소통 역량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며 자신의 의견을 설득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1943)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시간강사. yune777@naver.com

력 있게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의 토대가 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역량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학 교양 교육에서도 실용 글쓰기, 토론, 스피치와 같이 의사소통 역량 신장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이 수업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이 의사소통 역량과 직접적 관련 속에서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함에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는 발표, 토론, 협상과 같은 공적 의사소통 관련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들이 형식, 절차, 규칙을 익히는 것과 같이 구조화된 지식을 암기하는 입시 위주의 지식 교육에 치중되어 실제적인 활용 능력과 피리가 있었다. 대학에서도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단지성을 도출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말과 글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능력과 같이 사회 확산적으로 파급력을 지닌 실제성에 입각한 의사소통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본연구는 국어교육의 측면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의 방안으로 프레젠테이션에 주목하였다.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정보의 통합적 활용과 기호적·매체적 가공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구성하며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프레젠테이션과 연관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과 방법 연구에 활용될 기초 자료로써 대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발표 교육의 형식으로 프레젠테이션 관련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왔

으며, 대학에서의 과제, 프로젝트 등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향후 취업을 위한 면접 준비, 취업 이후 실무에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자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프레젠테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의사소통 역량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Kouwenhoven, 2003: 35; 송주현, 2014: 16)¹⁾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여 활용하는 능력(윤정일 외, 2007)²⁾이 강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 간 의사소통 능력,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인간관계, 협상, 자기관리 능력, 세계적 안목과 국제 환경에의 적응력(이돈희, 1999)³⁾ 등이 필요하게

-
- 1) Kouwenhoven, W.(2003), "Designing for competence in Mozambique: Towards a competence-based curriculum for the Faculty of Education of the Eduardo Mondlane University",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Twente, Enschede, Netherlands, p.35; 송주현(2014),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쪽.
 - 2) 윤정일·김민성·윤순경·박민정(2007), 「인간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권4호, 한국교육학회, 223~60쪽.
 - 3) 이돈희(1999),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교육의 새로운 위상」. 이돈희·강인애·강태중·김태완·이무근(편), 교육부 정책보고서 지식기반 사회와 교육, 1~22쪽.

되었다. 기존의 지식, 능력과 차별화된 ‘역량’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김경진, 2010: 12),⁴⁾ 역량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White, 1959; Maclelland, 1973; Boyatzis, 1982; Sepencer & Sepencer, 1993)⁵⁾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OECD의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세밀하게 규정된 역량 개념을 바탕으로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논의(이흥민·김종인, 2001; 이훈정, 2010; 소경희, 2009; 이근호 외, 2014; 백남진·온정덕, 2016)⁶⁾가 진행되었으며 학교 교육과정도 역량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현재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윤정일 외(2007), 백남진·온정덕(2016)에서는 역량이 총체성, 수행능력, 맥락성, 학습 가능성(발달 가능성)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역량의 본질적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총체성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총체적인 수행으로 드러나게 된다.

-
- 4) 김경진(2010), 「역량의 개념과 교육적 함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쪽.
 - 5) White, R. W.(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pp.297~333; Ma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p.1; Boyatzis, R. E.(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p.13; Spencer, L. M. J., & Spencer, S. M.(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p.8.
 - 6) 이흥민·김종인(2003), 『핵심역량, 핵심인재: 인적 자원 핵심역량 모델의 개발과 역량평가』, 한국능률협회 20~7쪽; 이훈정(2010),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가능성 탐색」, 『교육종합연구』 8권 3호, 교육종합연구소, 151~71쪽; 소경희(2009),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권 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1~20쪽; 이근호·김기철·김사훈·김현미·이명진·이상하·이인제(2013),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C, 2, 15~22쪽; 백남진·온정덕(2016),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이해와 설계』, 교육아카데미, 22~3쪽.

개인의 의사소통 역량뿐 아니라 개인 간 연계, 팀의 협력 차원에서
 공동체 역량에서 발휘되는 개개인 역량의 총체성으로도 볼
 수 있다. 수행능력은 실제 의사소통 수행상황에서 나타나는 능력
 으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소통하는 능력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는 행동,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인지, 정의, 심동적 영역의 전
 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진 역량이 사
 회생활로 전이되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맥락성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구체적 상황에서 역량
 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사회 환경, 문화 환경 등과 연계
 되어 있다. 의사소통 역량은 학습 가능한 후천적인 것으로 발달
 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가시적 영역인 자아개념, 특질, 동기처
 럼 수행과정에서 내면에 체화되는 수도 있고,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이나 전략처럼 직접학습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의사소통
 교육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 역량은 음성언어, 문자언어, 다양한 기호 등을 통한 표현
 과 이해를 통해 자신과 타인, 세계의 의미와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
 고 조정하는 능력으로 Hymes(1972)⁷⁾에 의해 정의된 Communicative
 Competence⁸⁾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는 언어사용을 위한 능력으로
 주어진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서 의사소통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다

7) Hymes, D.(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sociolinguistics* 269293, pp.269~93.

8) Language Competence(언어능력)와 의사소통 능력, 역량은 구별되는데 전자는
 원어민이 갖는 언어적 지식으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사용되는 언어적 시스템인
 linguistic Performance(언어 성능)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이는 촘스키가 생성문법
 (generative grammar)의 기초로 사용한 것이다. LC는 촘스키가 1965에 사용한
 용어로 이는 이상적인 화자, 청자가 주어진 언어의 문장을 이해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언어구조에 대한 암묵적인 지식이다. 이 용어는 촘스키의 80년 글에서
 Universal Grammar로 대체되었다.

른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다. Canale and Swain(1980: 34)⁹⁾은 Communicative Competence를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 사용하는 지식과 이를 사용하는 스킬이라고 하면서 Communicative Competence를 문법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능력(Strategic Competence)으로 구분하였다. 의사소통 역량은 다차원적이며 인지적, 행동적 차원 뿐 아니라 Cegala(1980)¹⁰⁾가 제시한 바와 같이 상호관련성(interaction involvement)의 측면도 포함한다. 즉 의사소통 역량은 대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포괄하며 개인 내적인 능력,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연계되어 있다.

2.2.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은 원래 마케팅 기법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호응을 얻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시청각 활동을 일컬었다(Jennifer Rotondo & Mike Rotono, 고광모 옮김, 2004). 하지만 현대에 오면서 회사에서의 업무나 상황 보고, 프로젝트에 대한 경과보고, 정책 수립을 위한 발표와 같이 프레젠테이션은 보고, 발표에 두루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의 특징을 앞서 제시한 의사소통 역량의 본질적 특성과 연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9) Canale, M., & Swain, M.(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pp.1~47.

10) Cegala, D. J.(1980), "An Explication and Partial Test of a Model of Interpersonal Persuasion",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66, pp.13~6.

첫째, 프레젠테이션은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말하기로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고 표현하는 개인적 능력이 발휘된다.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개인의 역량이 총체적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

둘째, 수행능력 측면에서 프레젠테이션은 학교에서의 교육이 사회생활로 전이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보고와 회의, 협상과 토론이 일상인 회사조직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구조화하여 효과적으로 제시하면서 타인을 설득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프레젠테이션은 발표할 주제, 화자와 청자의 관계, 조직의 분위기,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환경, 문화 환경 등과 연계된 맥락성을 지닌다. 오늘날의 프레젠테이션은 그것의 구성방식이나 목적에서 이전의 연설과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보다 광고의 특성에 가까운 형태를 띠면서 자본주의 시대의 설득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김영은·윤태진, 2013). 이런 측면에서 학교 교육에서의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언어교육의 본질에 입각하면서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프레젠테이션은 후천적인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의 교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들이 개인의 필요, 동기, 사회적 요구와 같은 비가시적인 영역과 연계되어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설득 능력과 같은 가시적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적절하다.

2.3. 프레젠테이션 교육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별 담화 유형으로 토론, 토의, 발표, 협상, 연설, 대화, 회의를 제시하고 있다. 토론은 비판적 사고력, 토의는 갈등조정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발표는 매체 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상은 문제해결능력, 연설은 의사소통능력, 대화는 언어사용 윤리, 자기관리능력, 개인관리능력, 회의는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담화 유형별로 특정한 교육 내용이 초점화 되어 있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은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구성하고 청자에게 전달하는 발표 담화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학생들은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이후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발표를 위한 매체 자료 작성을 넘어 의사소통 역량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자료 수집, 내용 구성, 슬라이드 디자인, 발표 태도, 발표 전략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역량과 연계하여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사소통 역량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 활용하는 능력, 기호·매체적으로 가공하는 능력과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해외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퀘벡주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¹¹⁾을 보면 ‘의사소통 역량’은 기호학적 접근과 매체 활용능력을 요구하는 복합적 역량임

을 알 수 있다(이근호 외, 2013). 이는 프레젠테이션 능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응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닌다.

둘째,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국어교육, 화법 교육에서 연구 성과물(황혜진 외, 1998; 조재운, 2004; 김미림, 2006; 나은미, 2007; 도원영, 2008; 유혜원, 2009; 백혜선 외, 2013; 박준홍, 2014)이 다소 미흡하다. 프레젠테이션이 주로 발표와 결부되어 형성되고 있으며 별도의 내용이나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대부분의 과제나, 발표 수업이 프레젠테이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입시, 입사 면접에서도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통해 다중적이며 복합적인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다. 국어과 핵심역량에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으로 제시된 매체 문식성은 학습이나 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소통하기 위해 정보 기술 특히 ICT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소통하고 협력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정보를 인출, 평가, 저장, 생산, 표현, 교환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로 일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국어과 교육에서는 전자 매체를 사용

11) 호주에서는 문해력, 수리력, ICT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윤리적 이해, 개인적·사회적 역량, 문화 간 이해를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력, 언어와 상징, 텍스트의 활용, 자기관리, 타인과 관계 맺기, 참여와 공헌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지식역량으로 정보 활용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판단력, 창의력을, 방법론적 역량으로 효과적인 방법의 채택, ICT 활용 능력을 개인적·사회적 역량으로 자아 정체성 형성, 타인과의 협동을 의사소통 관련 역량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제시하였다.

하거나 다양한 미디어, 컴퓨터를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정보를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데(이근호 외, 2013: 77),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통해 이러한 매체 문식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정보처리능력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인데,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내용을 구성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

넷째,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 학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미래 사회 교육에 대한 요구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개별성 존중, 인권, 인성, 태도 등 정의적 교육의 영역에 대한 강조, 사회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용성과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의 역량은 학습자들이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지식, 기능, 태도, 정서, 가치, 동기 등을 총체적으로 수용하고 자기화한 후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맞게 이를 변용, 적용시키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윤정일 외, 2007)되어 있어야 하며 역량을 가동하고 조정하는 능력 개발(송주현, 2014)도 필요하다.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정보를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읽기와 쓰기 교육, 설득력 있게 말하는 말하기 교육과 연계되어 있다. PPT 화면 내용을 구성하고 도식화 하는 부분은 미술 교육, 디자인 교육과 연계될 수 있다. 파워포인트나 프레지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히고 사용하는 부분은 컴퓨터 교육과 연계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융합형 교육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고에서는 의사소통 역량 신장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교육 내용 개발을 위해 대학생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능력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교양 수업으로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 관련 수업 첫 시간에 수업 방향성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의 형식으로 2019년 9월에 이루어졌다.

3.1.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 관련 정보

조사 기간	참여 인원	특징
2019년 9월	39명	*성별(인원):남(20)/여(19) *계열(인원):상경(12)/예체능(7)/이공대(9)/인문(5)/기타(6) *학번(인원):13학번(1)/14학번(3)/15학번(2)/16학번(14)/17학번(6)/18학번(9)/19학번(4)

프레젠테이션 수업 선택 이유는 아래와 같다.

〈표 2〉 프레젠테이션 수업 선택 이유

실제적 측면	능력 보완	*약점 보완 연습(4) *말하기 능력 신장(12)
	실무 적용	*실무 적용 가능한 PT 능력 향상(9) *다른 교과목에 응용 가능
	경험	*실습과 경험
개인 내적 측면	흥미	*기대와 흥미(4) *PT에 자신이 있음(2)
	자신감	*자신감 상승
외부적 측면	외부 요인	*현대사회 중요성 증대(2) *필수 과목임(6)
	수업 기대	*이론적 수업 *소통적 수업 듣고 싶어서

교양 교육으로서 프레젠테이션 수업 선택 이유를 실제적, 개인적, 외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말하기 능력 신장, 약점 보완과 연습에 대한 기대가 많았으며 향후 실무 적용한 프레젠테이션 능력 함양에 대한 기대, 실습을 통한 실제적 능력 함양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개인 내적 측면에서는 흥미나 자신감 상승이 수업 선택의 이유였다. 외적 측면은 현대사회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하거나, 학교의 필수과목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

3.2. 연구 절차

3.2.1. 설문 조사

설문은 자신의 말하기에 대한 메타 분석의 방식으로 10분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은 총 두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에 대한 SWOT 분석이다. SWOT 분석은 마케팅에서 시장 상황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기업에서 자신의 제품이나 회사가 처한 상황 분석,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S(Strength)는 강점, W(Weakness)는 약점, O(Opportunity)는 기회, T(Threat)는 위협이다. 강점과 약점은 내적 요인으로 자신의 말하기에 대한 장점과 약점 분석이며 기회와 위협은 외적 요인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설문은 프레젠테이션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과목 수강 이유, 수업을 통해 향상 시키고 싶은 내용,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3.2.2. 설문 분석

설문의 자유 응답형 문항에 대한 서술형 답변은 기술적(descriptive) 분석에 기반한(Tesch, 1990)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은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문서의 내용을 가능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적절한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분석 목적에 적합한 범주로 나누고, 분석 단위를 결정하고, 이를 수량화하는 과정을 거친다(김병성, 1996; 최윤미, 2009). 학생들이 답변한 내용을 전사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 주요 핵심 용어나 내용을 바탕으로 세그먼트(segment)를 한 후 이를 코딩하고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 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교육 내용이나 방법으로서 수업에 적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분석

4.1.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SWOT 분석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반언어, 비언어, 내용과 형식, 메타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표 3〉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강점과 약점 분석

	내용 분류 ¹²⁾	강점(S)	약점(W)
반언어	목소리	*듣기 편한 목소리 (제절/톤 좋음) *큰 목소리(14) *저음(3) *뚜렷한 목소리	*목소리 떨림(3) *발성 안 좋음 *크지 않은 목소리(2) *목소리 작음(2)

	발음	*발음 분명 *발음 괜찮음	*말끝 흐림(3) *부정확한 말투 *부정확한 발음(새는 발음/발음 중지 않음/발음 안 들림/코맹맹 이 소리)
	빠르기	*빠르지 않음 *천천히 말함	*빠른 편(6) *빨라짐(7) *속도가 느린 편
	억양	*중요 부분 악센트 줌	
비언어	표정	*표정 좋음 *잘 웃음 *적절한 제스처	*표정 굳음 *입꼬리 내려감
	시선	*청중 눈 똑바로 봄	*시선 처리 불안정(2) *청중 보지 않음
	제스처	*적절한 제스처	
내용과 형식	내용	*내용 준비 철저 *포인트 잘 파악 *내용을 잘 만든다. *예를 잘 들어 지루함 없음	*대본 없이 말하기 어려움 (완벽한 대본 필요) *PPT 의존도 높음 *완벽히 숙지하지 않으면 긴장해 서 평소보다 말을 잘 하지 못함 *자료 없이 말하기 어려움 *글 완벽히 쓰지 않으면 못함 *대본 숙지 어려움 *주제 벗어남 *연습 많이 필요 (오랜 준비 기간, 준비 부족-말 정리가 되지 않음) *상식 부족하여 발표 주제와 결들 여 말할 소재 부족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함구
	PPT	*만들기 좋아함(2) *잘 만든다(4) *관심이 많다 *디자인 자신 있음(2)	*PPT 잘 만들지 못함 *PPT 고급스럽지 못함
	성격	*활발(2)/외향적 *친절, 위트 섞어 말하는 것 좋아함	*흥분함(2) *미루는 버릇 *내성적 성격

메타 인지		*영어 발음 좋음 *사교성/재미있음/웃음/유머 *관심받기 좋아함	
	태도	*자신감(6) *말 잘 들어줌 *긴장하지 않음(9) *두려움 없음 *즐거려 노력 *발표 시 창의적 생각 많음 *재미있음	*무거운 분위기에 긴장(5) *매우 떨림(2) *대본 잊을 것 같은 긴장감 *자신감 부족 *눈치를 봄 *말하다가 스스로 무슨 말 하는지 모름 *잘 고쳐지지 않음 *청중 반응이 좋지 않음 *말하기 불안 *말이 꼬이면 당황함 *긴장하면 문장 길어짐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익숙지 않음(2) *시간 투자 부담 *청중이 지루해하면 자신감 잃음
	표현력	*정보전달 잘함 - 전달력 있음(4) *조리 있게 말함(2) *알아듣기 쉽게 말함 *몰입도 *말 잘함 *대화를 잘 이끌어 감 *임기응변 *즉흥적인 것 잘 함 *언어능력 있음 *말 잘함 *딱딱한 이야기 재미있게 말함	*긴장하면 말이 떠오르지 않음 *말을 잘하지 못함 *자신감 없는 내용에 대해 말을 잘하지 못함 *조리 있게 말을 잘하지 못함 *말 더듬기(5) *같은 말 반복 *부드럽고 매끄럽지 않음 *콘텐츠 대비 전달력이 부족함 *중간에 ‘어’ 소리 냄 *전달력 떨어짐(2) *순발력 부족 (돌발 질문에 능숙하지 않음) *한번 말 꼬이면 준비한 말 다 못함/두서없이 이야기함

12) 내용 분류의 하위 요소에 제시된 수치는 주관식 문항에서 언급된 어휘의 빈도를 표시한 것이다.

반언어적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의 가장 큰 차이는 목소리의 크기와 빠르기였다. 강점으로는 ‘목소리가 크다, 천천히 말한다’가, 약점으로는 ‘목소리가 작거나 크지 않고, 속도가 빨라진다’가 대비되는 특징으로 제시되었다. 비언어적 측면에서는 시선 처리에 관한 부분이 약점으로 주로 언급되었다. 그동안 말하기 교육에서 반언어·비언어 관련 내용이 ‘적절한 목소리나 빠르기로 말한다’와 같이 포괄적, 형식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에서의 말 속도나 목소리 크기에 대한 기준 같은 교육 내용들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는 ‘대본 없이 말하기 어렵다는 점,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완벽한 대본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두드러진 약점에서 제시되었다. 학습자들은 원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숙지에 있어서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발표나 스피치 수업에서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원고나 대본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숙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도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원고를 ‘달달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고, 이를 잘 외우지 못했을 때, 혹은 까먹었을 때 당황하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발표 원고 작성 방식과 실제 말하기에서의 효율적 원고 숙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PPT 제작 관련해서 PPT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많을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의 강점으로 작용하지만 PPT를 잘 만들지 못하거나 디자인 구성이 미숙한 경우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교육에서 PPT 작성, 디자인 관련한 실용적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타인지 측면에서는 외향적, 유머러스한 성격은 프레젠테이

선에 강점으로 제시되었으나 내성적이거나 지나치게 흥분을 잘 하는 성격은 약점으로 제시되었다. 자신감 있고 긴장하지 않는 태도가 강점으로 제시되었으며 표현력에서 ‘전달력 있게 말을 잘 하는 능력, 임기응변 능력’이 강점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특징들은 개인의 타고난 특성일 수도 있지만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 유머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방법, 전달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 교육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전달력’이라는 측면은 언어적, 비언어적, 내용적 측면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추후 인터뷰 등을 통해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전달력’의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기회,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용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아실현, 타인과의 교감, 내적 의사소통의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4〉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기회와 위협

	내용 분류	기회(O)	위협(T)
사회적 자아 실현	직업적 측면	*교직에 잘 맞음(5) *배우로서 연기할 때 *사업 쪽에 유리함(2)	
	업무 (임무) 수행 및 목표 달성	*기업 PT 때 효과적 전달(5) *주제 빨리 파악 *야외에서 전달 용이 *정보 전달(개인 말하기) 용이 *면접에 유리(2) *자신감의 극대화로 면접 성공 가능성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 리함(6) *청중에게 전달력 미흡(3) *면접, 공식 석상에서 말하 기 불리(4) *지시 사항 명확히 전달 못 할 수 있음.
	신뢰감	*신뢰감 줄 수 있음	*전문성 부족으로 신뢰감 저하(5)
타인과 교감	대인관계	*소규모 모임에서 어필 가능 *조직에서 분위기를 풀어줄 수 있음(3)	*공격적, 불친절해 보일 수 있음 *낮가림

	공감	*설득이나 공감적 발하기 잘함 (2) *청중의 이해도 높일 수 있음.	*청중과의 교감 미흡(2)
내적 인지	자신감	*발표 기회 피하지 않음 *연습으로 발전 가능성 있음(2)	*스스로 의기소침해짐

학습자들은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기회요인으로 특히 취업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회적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즉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강점이 직업적 업무 수행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실용적인 내용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역량’이 추구하는 바와도 일맥상통한다.

학습자들은 대인관계, 공감, 청자와의 교감, 자신감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청자와 교감하고,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능력은 발표를 피하지 않고 자신의 발표 능력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자신하는 긍정적 측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협요인으로 청중과의 교감 미흡, 전문성 부족, 신뢰감 저하와 같은 관계적 측면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였다. 즉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학습자의 능력이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평가 받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이 남들에게 보여주는 말하기, 이벤트의 특성을 지닌 말하기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인식과 그에 따른 평가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지적 부담과 연계해 보았을 때 프레젠테이션은 단순 말하기를 넘어서 자아인식, 자아 존중감의 측면까지도 그 영향력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2. 수업을 통해 향상시키고 싶은 프레젠테이션 능력

〈표 5〉 수업을 통해 향상시키고 싶은 프레젠테이션 능력

내용	내용 구성 능력	*원고 구성 능력(3) *정리된 발표 *PPT 능력 *기획력 향상
표현	유창성	*자연스럽게 말하기(2) *말 잘하기(전문적 화술) *자신감 있게 발표하기(3) *집중도 높은 강연 능력 *지루하지 않게 하기 *조리 있게 말하기
	비언어적 측면	*표정 연습 *비언어적 표현(5) *말 더듬는 것 고치기 *발음 고치기 *안 좋은 스피치 습관 고치기
상호 작용	청중 배려	*청중 배려하며 발표하기 *공감 능력 향상
	대처능력	*구술 질문에 대한 대처능력 *임기응변 능력(4) *시간 조정 능력
개인 내적 측면	자신감	*모르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지 않기(7) *성격 밝아짐

프레젠테이션 수업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내용 구성, 표현, 상호작용, 개인 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원고의 구성 능력과 기획력 부분에 대한 기대사항이 있었는데, 보통의 수업이 그냥 프레젠테이션 원고나 자료를 작성해 오도록 하고 발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내용을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원고나 내용을 어떻게 기획해야 할지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글쓰기 수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데 글을 쓰기 전 내용을 계획하고,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단계와 같이 프레젠테이션 원고

를 만들 때 기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수업이 필요하다. 이때 프레젠테이션의 장르적 특징을 반영하여 일반적 글쓰기와 차별화된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상호 작용적 측면에서 청중과의 공감 능력 향상, 배려하며 발표하는 능력, 발표 시간을 조정하고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임기응변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는 다양한 실습 교육, 청중 평가, 자신의 말하기에 대한 메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실습 시간을 늘리고 이에 대한 반응이나 피드백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타 대화 분석 방식의 수업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중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대학생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역량 신장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내용의 범주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의사소통 역량 신장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범주(案)

교육 범주	능력	세부 교육 내용
표현력	비언어적 표현능력	-목소리 크기, 발음의 명확성 -적절한 속도 조절 -표정 연습, 시선 처리
	언어적 소통 능력	-원고를 자신의 말로 표현하기

문제해결	내용 구성 능력	-자료 조사, 자료 구성 -적절한 멘트 작성
	매체 작성 및 활용 능력	-디자인 측면에서 슬라이드 템플릿, 글자체, 색상 선정하기 -추가적 매체 활용, 변형, 적용
메타인지	말하기 태도	-자신감 키우기, 발하기 불안 극복
	대처 능력	-즉문즉답, 예상 질문 및 답변 연습 -1, 3, 5분 스피치 연습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의 범주를 크게 표현력, 문제해결, 메타인지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표현력은 언어와 비언어적 능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학생들은 말의 속도나 목소리 크기를 약점으로 언급하였다. 프레젠테이션에 적절한 목소리 크기나 속도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이론이나 전략 중심의 교육보다는 실제 자료를 분석하거나 학습자들의 말 속도나 목소리 크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의 수업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대본을 외우거나 숙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를 자신의 말하기 약점이라고 분석하였다. 원고를 달달 외우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고를 숙지하는 방식이나 대본 없이 말하기 연습과 같은 스피치 교육방법이 프레젠테이션 수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내용 구성 능력, 매체 작성 및 활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PPT 작성 요령과 더불어 디자인적으로 세련된 PPT 화면 구성하기, 실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슬라이드 제작하기와 같은 수업이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PPT 슬라이드가 설득력 있는 발표 자료로서 매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나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 방법과 관련된 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

메타인지 측면에서는 긴장감을 줄이면서 발하기 불안을 극복

하는 방법,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는 방법,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이 수업의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말하기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시간, 환경적 여건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즉석에서 질문에 답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육적 측면에서 기존 발표 교육이나 토론 교육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앞서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그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프레젠테이션 교육 연구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본질과 중요성을 제시하여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이를 통해 대학교에서 취업 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단편적이며 형식적인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의사소통 역량 신장의 목표를 부여하고, 대학 교양교육에서 프레젠테이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프레젠테이션 교육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의 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교양 교육에 적합한 구체적인 프레젠테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은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경진(2010), 「역량의 개념과 교육적 함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림(2006),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화법교육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성(1996), 『교육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김영은·윤태진(2013), 「한국사회 내 프레젠테이션 문화의 출현과 그 의미」, 『한국소통학보』 제20권, 한국소통학회.
- 나은미(2007),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의 조건 및 평가에 대한 고찰」, 『화법연구』 제11권, 한국화법학회.
- 도원영(2008), 「말하기에서의 동작 언어에 대한 고찰-자기소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39권, 한국어학회.
- 박준홍(2014), 「프레젠테이션 교육 내용 비교 연구-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제24권, 한국화법학회.
- 백남진·온정덕(2016),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이해와 설계』, 교육아카데미.
- 백혜선·이규만(2013), 「프레젠테이션에 나타나는 복합양식 문식성 실행 양상 분석-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6권, 국어교육학회.
- 소경희(2009),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권 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 송주현(2014),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혜원(2009), 「프레젠테이션 평가 내용을 통한 교육 내용의 모색에 관한 고찰-대학 말하기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44권, 한국어학회.
- 윤정일·김민성·윤순경·박민정(2007), 「인간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권 4호, 한국교육학회.
- 이근호·김기철·김사훈·김현미·이명진·이상하·이인제(2013),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C, 2.
- 이돈희(1999).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교육의 새로운 위상」. 이돈희·강인애·강태중·김태완·이무근(편). 교육부 정책보고서 지식기반 사회와 교육.
- 이훈정(2010),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가능성 탐색」, 『교육종합연구』 8권 3호, 교육종합연구소.
- 이흥민·김종인(2003), 『핵심역량, 핵심인재: 인적 자원 핵심역량 모델의 개발과 역량평가』, 한국능률협회.
- 조재운(2004), 「프리젠테이션 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화법연구』 7권, 한국화법학회.
- 최윤미(2009), 「대학에서의 ‘좋은 팀워크’의 특성 및 유형에 대한 대학원생의 인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3).
- 황혜진·조계숙(1998),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에 관한 연구」, 『비서학논총』 7권, 한국비서학회.
- Boyatzis, R. E.(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 Canale, M., & Swain, M.(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 Cegala, D. J.(1980). “An Explication and Partial Test of a Model of Interpersonal Persuasion”,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66.
- Hymes, D.(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sociolinguistics*.
- Jennifer Rotondo, Mike Rotondo.(2001), *Presentation Skills for Managers*, New York: McGraw-Hill
- 《고광모(2004), 『프레젠테이션의 기술』, 지식공작소》.
- Ma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 Kouwenhoven, W. (2003), *Designing for competence in Mozambique: Towards a competence-based curriculum for the Faculty of Education of the Eduardo Mondlane University*,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Twente, Enschede, Netherlands.
- OECD.(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DeSeCo)*, OECD Press.
- Rita C. Richey·James D. Klein.(2012), 정현미·김광수 공역(2012), 『교육공학연구를 위한 설계·개발 연구』, 학지사.
- Rotondo, J., Rotondo, M., Formisano, R. A., & Totondo, M. (2002). *Presentation skills for managers*, New York: McGraw-Hill.
- Spencer, L. M. J., & Spencer, S. M.(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White, R. W.(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Abstract

Presentation Education Research to Improve Communication Competence

: Focusing o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Kim, yune jung

Keywords: Presentation training, communication competence, university education,
college student awareness, persuasive speec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presentation education as a basic study of presentation education research to improv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o present directions for developing presentation education contents.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39 college students who took the presentation course and analyzed SWOT for their speaking and ability to improve through presentation classes. As a result of recognition survey,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obtained. First, specific education-related content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resentation genres different from the presentation class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classes. Second, speech education methods such as the method of acknowledging the manuscript and speaking practice without script should be applied to the presentation class so that the manuscript can be freed from the obsession. Third, lessons such as how to write a PPT, construct a stylish PPT screen by design,

and make various slides used in practice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ntents of the presentation education. Fourth, the time for education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should be secured to improve attitude through training and practice, such as how to reduce tension or build confidence, and how to increase communication.

이 논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0년 3월 31일부터 2020년 4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4월 14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